

순천공고서 또래학생 집단폭행 파문...경찰 조사

휴대폰 뺏고 협박·폭행영상 SNS 올리기도
치밀하게 증거인멸...교육당국은 은폐 급급

순천공업고등학교에서 10대 청소년 5명이 또래 동급생을 집단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교육당국은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학부모 설득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7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순천공고에 재학 중인 A학생은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1년 넘게 집단폭행을 당해왔다.

2학년 학생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최근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사건을 인지한 경찰과 학교는 집단폭행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5명 중 3명은 1학년 1학기부터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폭행을 저질러 왔다”면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2명이 더 합세해 폭행에 가담하고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폭언마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A학생)의 누나가 학교폭력을 의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1년6개월간 학교폭력이 이어져 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A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빼앗아 가족들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행위에 견디지 못한 A학생은 선생님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또다시 A학생을 압박해왔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수시로 A학생의 휴대 전화를 확인하는 악랄함과 치밀함까지 보였다.

계속된 폭행에 A학생은 음성녹취 등 증거를 수집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이를 확인해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 전화를 훼손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이 뺨, 명치, 다리, 머리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인터넷 카페에 뿌려버리겠다는 등 협박은 물론 폭행 영상을 친구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악랄함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

지만,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 사실을 알고 학교와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다음날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전화로 ‘사건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테니 신문고의 글을 내려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했다”며 “학교도 학폭위를 열고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지만 더이상 교육 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순천공고학생부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사건조사를 마쳤고 서류를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낼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 담임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를 믿지 못해 폭력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퇴학시키고 전화 보내는 등의 조치보다는 원만하게 모두가 졸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순천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은 이관됐지만 피해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조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신문고의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일주일 안에 해야하는데 사건 조사기간이 있다 보니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어서 의견을 여쭙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주연 기자

청년 온라인 매칭데이
서구, 13일까지 접수

광주 서구가 오는 14일 2층 들불홀에서 관내 28개 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 온라인 매칭 데이’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칭 데이를 위해 지난 8월17~27일 참여기업들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3개 기업이 접수했으며, 이 중 28개 기업체를 선정해 청년 정규직 채용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매칭 데이를 통해 채용된 청년에게는 정규직 채용과 함께 취업유지장려금, 자기개발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일자리정책과(062-360-7164)로 문의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감각정원 미디어 파사드 전시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열리며 관람객들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생훈 기자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 ‘감각정원-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에서 시민들이 문창환 작가의 ‘더 완벽한 세계’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감상

4년간 광주·전남 공무원 성범죄 34건

중징계 20건...성폭력 17건 가장 많아

최근 4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34건 발생해 20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8건, 전남에서 26건의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집계를 공개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전남 7건, 2018년 광주 4건·전남 7건, 2019년 전남 8건, 지

난해 광주·전남 각 4건이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뤄진 인사 처분은 중징계 20건, 경징계 14건이다.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경징계란 감봉·견책을 말한다.

성범죄 유형은 성폭력 17건, 성희롱 14건, 성매매 3건 순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 내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며 “성 비위만큼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학동붕괴 참사 시민대책위 출범

오늘 시청앞서 기자회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참여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만 3개월이 지나

고 있지만 유가족, 시민의 기대와 달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형식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이 진정한 사과도 없이 돈으로 유가족을 우롱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 현대산업개발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대책 제도화와 법 제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출범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대표단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민빈 기자

광주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소규모 시설 난립 우려 반대 목소리...시 “대책마련”

광주 무등산 자락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임박해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북구는 4수원지 일대 9.7㎢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려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취수 가능이나 수질이 취약하고 지난 5월 각화정수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더는 수원지가 필요 없어졌다고 시는 배

경을 설명했다.

4수원지는 북구 청풍동 일대 석곡천을 막아 1967년 준공됐으며 보호구역 지정은 1981년이었다. 40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절반이 넘는 5.7㎢ 사유지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상당 면적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환경 지구에 해당해 개발 행위는 여전히

제한된다. 다만 공원 마을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대단위 개발은 어렵더라도 수려한 경관을 고려한 음식점, 카페, 펜션 등 소규모 시설 난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책 마련에 손잡아야 할 광주시와 북구는 논란이 일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상대방이 주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양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빛고을 하천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천 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등 차원에서 (정책이)검토돼야 한다”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북구, 환경부는 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에 요청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검토해 해제를 추진하고 최종 결정을 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계획과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을 대책을 협의하고 북구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 3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용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소터디 광주 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12억7천 -> 최저가1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6억3천 -> 최저가2억1천 (9/14) 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062-382-5500